

2019년 12월 12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연준의 경기 자신감 표명에 상승 확대 파월 연준의장 “인플레이션 상승하기 전 금리인상은 없다”

미 증시 변화요인: 무역협상 기대, FOMC 결과, 밸류에이션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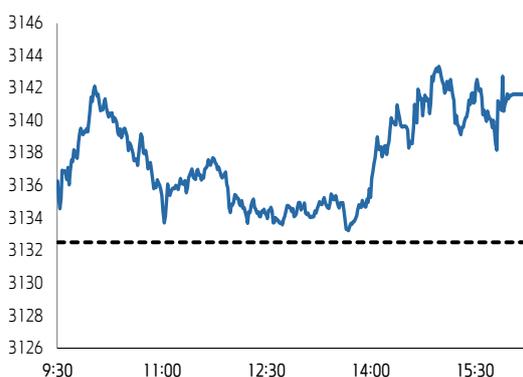
미 증시는 15일 추가관세 연기 기대가 높아진 데 힘입어 상승하기도 했으나, 일부 기업들의 부진한 실적에 대한 우려로 매물이 출회되며 보험권 등락으로 전환. 이런 가운데 연준이 FOMC를 통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자 반등. 한편, 파월 연준의장은 인플레이션 상승 전 금리인상은 없다고 주장해 상승기조를 유지(다우 +0.11%, 나스닥 +0.44%, S&P500 +0.29%, 러셀 2000 +0.01%)

15일 추가 관세를 앞두고 낙관전망이 유입되고 있음. 미 일부 언론에서 트럼프가 협상팀과 함께 15일 관세 연기를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중국의 요구대로 3천억달러 넘는 제품에 부과된 관세 또한 하향 조정도 논의되고 있다고 언급. 특히 현재 알려진 바로는 ①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②미세 조정단계라는 점을 감안 추가 관세 연기되거나 부과하더라도 실제 부과는 미룰 가능성은 매우 높음. 그러나 트럼프가 협상팀과의 논의를 무시하고 관세를 부과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시장 참여자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양상. 이를 종합해보면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으나 관세 부과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에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

한편, 연준은 FOMC를 통해 금리 동결, GDP 성장률 유지, 실업률 하향 조정, 2020년까지 금리 동결 시사하는 등 시장 예상과 부합된 결과를 내놓음. 더불어 경제가 완만한 속도로 성장한다고 발표하자 미 증시는 반등. 파월 연준의장이 인플레이션 상승하기 전 금리인상이 없음을 언급한 점도 긍정적. 더불어 기업투자와 수출은 부진하지만 소비가 강하다고 주장해 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이어간 점도 우호적.

그런 가운데 의류업체들의 연말 쇼핑시즌 매출이 예상을 하회하는 등 일부 기업들의 실적 부진 우려가 높아진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여전히 기존의 관세 부과로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지수가 상승해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기 때문. 이 여파로 장중 매물 출회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최근 미 증시 상승을 제한하는 경향.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지수동락률(%)	Close	D-1	지수	지수동락률(%)	Close	D-1
KOSPI		2,105.62	+0.36	홍콩항셱		26,645.43	+0.79
KOSDAQ		629.13	+0.32	영국		7,216.25	+0.03
DOW		27,911.30	+0.11	독일		13,146.74	+0.58
NASDAQ		8,654.05	+0.44	프랑스		5,860.88	+0.22
S&P 500		3,141.63	+0.29	스페인		9,392.50	+0.77
상하이종합		2,924.42	+0.24	그리스		883.96	+2.59
일본		23,391.86	-0.08	이탈리아		23,155.64	+0.1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23%

퀄컴(+3.42%)은 BOA가 5G폰 판매가 크게 증가해 실적이 예상보다 낙관적이라고 발표하자 상승했다. 지난 9일 BOA가 관련 기대로 투자 의견과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한 스카이웍(+4.69%)과 쿼보(+3.62%)도 동반 상승했다. 한편, 애플(+0.85%) 또한 내년 5G폰 판매 기대가 높아진 데 힘입어 상승했다. 더불어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며 15일 추가 관세가 연기될 수 있다는 기대가 확산된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마이크론(+3.79%), 텍사스인스트루먼트(+1.94%), AMAT(+4.27%) 등 반도체 관련주도 동반 상승했다.

홈디포(-6.55%)는 2020년 매출이 예상보다 부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유입되며 하락했다. 의류업체인 아메리칸 이글(-6.55%), 갭(-2.77%), L브랜드(-3.03%), 어반 아웃피터(-2.74%) 등은 연말 매출이 예상보다 낮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했다. 사이몬 프로퍼티(-2.44%), 리젠시 센터(-2.49%), 리얼티 인컴(-1.36%) 등 리츠금융회사들은 국채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였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60%	대형 가치주 ETF(IVE)	+0.26%
에너지섹터 ETF(OIH)	+1.78%	중형 가치주 ETF(IWS)	+0.12%
소매업체 ETF(XRT)	-0.69%	소형 가치주 ETF(IWN)	-0.01%
금융섹터 ETF(XLF)	-0.23%	대형 성장주 ETF(VUG)	+0.34%
기술섹터 ETF(XLK)	+0.68%	중형 성장주 ETF(IWP)	+0.22%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71%	소형 성장주 ETF(IWO)	-0.06%
인터넷업체 ETF(FDN)	+0.21%	배당주 ETF(DVY)	+0.16%
리츠업체 ETF(XLRE)	-0.76%	신흥국 고배당 ETF(DEM)	+1.27%
주택건설업체 ETF(XHB)	+0.88%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98%
바이오섹터 ETF(IBB)	-0.52%	미국 국채 ETF(IEF)	+0.41%
헬스케어 ETF(XLV)	+0.09%	하이일드 ETF(JNK)	+0.22%
곡물 ETF(DBA)	-0.18%	물가연동채 ETF(TIP)	+0.35%
반도체 ETF(SMH)	+2.14%	Long/short ETF(BTAL)	-0.2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36.81	-0.16%	+1.24%	-0.96%
소재	375.27	+0.71%	+1.68%	-0.87%
산업재	682.25	+0.68%	+1.47%	-0.94%
경기소비재	954.67	+0.29%	+0.74%	+0.42%
필수소비재	639.60	+0.15%	+0.13%	+2.47%
헬스케어	1,154.80	+0.17%	+0.27%	+4.79%
금융	500.03	-0.21%	+1.21%	+1.35%
IT	1,540.24	+0.71%	+1.74%	+1.67%
커뮤니케이션	178.86	+0.30%	+0.67%	+2.14%
유틸리티	318.48	+0.33%	-0.40%	+2.17%
부동산	234.70	-0.76%	-1.15%	+1.0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외국인 선물 순매수 기초 이어지며 상승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 는 1.22% MSCI 신흥 지수 ETF 는 1.46% 상승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2,406 계약 순매수하자 1.70pt 상승한 282.45pt 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88.88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7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15 일 추가관세 기일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여전히 연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관세가 부과 되더라도 실제 부과는 미룰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등 부담스러운 이슈가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우호적이다. 이런 가운데 미 연준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며 금리를 동결한 점도 투자심리에 우호적이다. 더불어 파월 연준의장이 인플레이션을 보기 전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점도 투자심리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미국 일부 기업들의 부진한 실적에 대한 우려로 높은 밸류에이션은 부담으로 작용해 미국 증시 상승폭이 제한된 점은 부담이다. 그러나 이보다 한국 증시는 낙관적인 미-중 무역협상과 연준의 긍정적인 경기 전망 등에 더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물옵션 만기일 외국인 선물 순매수 기초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우호적이다. 그동안 시장 발목을 잡았던 미-중 무역협상 관련 이슈가 낙관적으로 변화하자 외국인이 4 거래일 연속 지수 선물을 순매수 해왔기 때문이다.

더불어 지난 9 일 BOA 가 스카이웍(+4.69%)과 퀴보(+3.62%)에 대해 5G 스마트폰 판매 급증 기대가 높으며 투자 의견을 상향조정한데 이어 오늘은 켈컴(+3.42%)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언급하자 관련 기업들이 급등했다. 이와 함께 낙관적인 무역협상에 힘입어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23% 상승한 점도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 0.3% 상승

11 월 미국 소비자물가는 예상(mom +0.2%)을 상회한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전년 대비로도 예상(yoy +2.0%)를 상회한 2.1% 증가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는 전월 대비 0.2%, 전년대비 2.3% 상승해 예상과 부합되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채금리 하락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했다. EIA 는 지난 주 미국의 원유 재고가 280 만 배럴 감소 전망과 달리 82 만 배럴 증가 했으며, 특히 가솔린이 540 만 배럴, 정제유가 440 만 배럴 증가해 수요 둔화 우려를 높인 점도 하락 요인이었다. 한편, 미국의 대 중국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일을 앞두고 변화는 제한되었다.

달러화는 여타환율에 대해 보합을 유지하다 연준이 내년까지 금리를 동결하는 것을 시사하자 약세로 전환했다. 파운드화는 12 일 총선을 앞두고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다만, 보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자 강세폭은 제한되었다.

국채금리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보다 양호한 결과를 내놓자 상승 출발했다. 그러나 FOMC 를 기다리며 하락 전환하기도 하는 약보합권을 유지했다. 한편, 연준은 금리를 동결을 발표한 가운데 파월 연준의장이 금리인상은 인플레이션 상승을 보고 하겠다고 주장해 지속적인 금리동결을 시사하자 10 년물 국채금리가 1.8%을 하회했다.

금은 달러가 약세를 보이자 FOMC 결과를 기다리며 상승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0.77% 철근은 0.14% 하락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8.76	-0.81	+0.56	Dollar Index	97.117	-0.30	-0.54
브렌트유	63.72	-0.96	+1.14	EUR/USD	1.1134	+0.38	+0.51
금	1,475.00	+0.47	-0.35	USD/JPY	108.54	-0.17	-0.29
은	16,849	+0.88	-0.40	GBP/USD	1.3194	+0.29	+0.69
알루미늄	1,760.00	+0.28	+0.11	USD/CHF	0.9826	-0.18	-0.60
전기동	6,156.00	+0.92	+4.60	AUD/USD	0.6879	+1.03	+0.44
아연	2,222.00	-0.25	-1.07	USD/CAD	1.3173	-0.43	-0.21
옥수수	371.25	-1.53	-1.92	USD/BRL	4.1181	-0.67	-2.12
밀	519.25	-0.86	-1.56	USD/CNH	7.0282	0.00	-0.34
대두	908.00	-0.82	+1.74	USD/KRW	1194.70	+0.29	+0.03
커피	135.20	+1.43	+11.51	USD/KRW NDF1M	1188.88	-0.07	-0.13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1.790	-5.20	+1.56	스페인	0.410	-4.80	-2.90
한국	1.620	+0.10	-3.20	포르투갈	0.352	-3.70	-2.20
일본	0.003	+1.60	+4.10	그리스	1.353	+0.20	-17.60
독일	-0.321	-2.60	-0.60	이탈리아	1.201	-4.00	-8.70